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 사찰음식

안국동에 체험관 오픈
12월 15일 개관식 개최

사찰음식 정보 다국어 서비스
전시·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2월 15일 서울 종로 안국동에 위치한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개관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내외빈이 테이프 커팅식을 하는 모습.

사찰음식 정보 서비스와 체험 · 교육을 한 번 선보이는 복합문화공간이 문을 열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은 12월 15일 서울 종로 안국동에 위치한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개관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김철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관, 김종덕 국제슬로푸드 한국위원회장, 사찰음식 전문가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사찰음식 대중화를 위해 새롭게 문을 연 체험관은 한국사찰음식의 전통과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한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사찰음식 복합문화공간이다.

프로그램은 인포메이션, 전시(상시 · 비상시), 체험, 교육 등으로 이뤄진다. 인포메이션을 통해서는 사찰음식 정보에 대한 다국어 서비스 지원, 전문서적 판매, 발우공양 게임 등이 운영되며, 체험관 전시공간은 사찰음식문화의 원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전통사찰 공양간 재현, 전통발우 전시, 사찰의 전통장류 전시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꾸며진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내 · 외국인, 학생 · 직장인 등 다양한 대상층을 고려한 사찰음식 체험과 교육이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사찰음식 어린이 미각 교실(매주 화 오후2~4시, 선재 스님) △사찰음식 차 명상 체험(매주 수 오후 1~2시, 대현 스님) △사찰음식 고추장 만들기(매주 목 오후 2~4시. 정관 스님) △외국인 대상 발우공양 체험(매주 토 11시~2시, 우관 스님) 등이 운영된다.

체험관 내 교육장에서 이뤄지는 교육 프로그램에는 사찰음식 전문가 적문 스님, 정관 스님, 대안 스님 등의 특강과 전문지도사 양성 교육 등이 이뤄진다. 특히 사찰음식 전문지도사 양성 교육은 24주 72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개관식에 참석한 내 · 외빈들도 사찰음식체험관이 한국불교문화를 대내외에 알리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치사를 통해 "한국 사찰음식은 한국불교의 수행정신과 역사와 문화 전통이 잘 간직된 음식"이라며 "이번 체험관 개관이 물질적인 풍요 속에 정신적 빈곤을 겪고 있는 현대문명 속의 우리들에게 맑고 향기로운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 스님은 "체험관이 사찰음식문화 전승 및 대중화는 물론 한식문화 발전에 일조하고 나아가 건강한 식문화에 대한 개인적 · 사회적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이용 문의(02)733-4650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종교인 부당특혜… 근로소득 과세하라"

과세운동본부 16일 출범
'세법 개정안' 폐지 주장

개정안, 종교인 '기타소득' 분류
식비 · 교통비 · 학자금 등 비과세
"조세원칙 위반"… 위헌 소송도

종교인근로소득과세를위한국민운동본부는 12월 16일 서울 종로구 국세청 앞에서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2월 2일 의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종교인에 대한 부당 특혜"라며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종교인의 식비와 교통비, 본인 학자금 등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했다. 또한 국회는 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부터로 규정함으로써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에 대해 "종교인도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반발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종교인근로소득과세를위한국민운동본부(이하 종교인과세운동본부)는 12월 16일 서울 종로구 국세청 앞에서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은 아무런 이유 없이 종교인을 특별대우 하고 있다. 조세공평주의에 따라 종교인 근로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종교인과세운동본부는 "종교인 소득은 계속 · 반복적인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분류치 않고 '종교소득'이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특별대우"라며 "이미 천주교 및 조계종 등 일부 종교단체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왔으며, 대다수 세법전문가와 조세심판원도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급부를 근로소득으로 인정한다. 대법원도 종교인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교인과세운동본부는 "개정 이전 소득세법에서도 종교인 소득이 비과세 항목으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과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정부는 과세처분을 수십 년간 유예했다"면서 "무능한 정치권이 일부 부도덕한 종교계에 양심을 팔았다. '정교유착'의 고리를 끊는 국민적 분노가 필요한 이유"라고 일갈했다.

이어 종교인과세운동본부는 '2년의 유예기간'에 대해선 "위정자가 자신의 임기 중엔 책임지지 않으려는 꼼수"라며 "정부는 일부 종교계 반발에 밀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를 외면했다. 종교인에 대한 부당특혜는 대다수 국민에게 차별을 주는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종교인과세운동본부는 "종교인 과세규정을 근로소득세로 전향할 수 있도록 전문가 토론회, 캠페인, 100만 서명운동, 국민감사청구, 위헌소송, 낙천운동 등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종교인과세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감사원을 방문, "국세청이 대형교회 3곳의 25억 전별금('떠나는 사람을 위로하는 뜻에서 주는 돈'이란 사전적 의미)에 대해 과세하지 않았다"면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종교인과세운동본부에 따르면 국민감사청구서에는 약 630명이 동의 서명을 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지역 맞춤형 전법 펼쳐야"

조계종 불교사회硏, 17일 '종교공동체 지향세미나'

불교가 전 세계 문화권에 전파될 때, 공동체에 적절히 융화 · 접목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12월 17일 서울 견지동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서 '현대사회 속의 바람직한 종교공동체의 지향 세미나 2'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진우기 로터스불교영어연구원은 불교가 서양 문화권으로 전해지며 겪는 변화와 융합 과정에 주목했다.

진 연구원은 "불교는 다른 문화권으로 전해질 때 그 지역문화를 일부 받아들여 지역에 맞는 전법을 펼쳤다. 이 중 변화의 수준이 너무 커서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예를 들어 서양에서 크게 유행한 마음챙김(mindfulness)은 주류문화에 진입하는 과정서 세속화 돼 비판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는 '개인주의'가 확산된 서양에 불교가 전파될 당시 심리학과 접목되거나 사회 참여적 성향을 띄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진 연구원은 유럽의 종교공동체 '플럼빌리지(Plum Village)'와 미국의 '스피릿 록(Spirit Rock Meditation Center)'을 소개하며 "불교를 세속화하려는 미국 내 주류 마음챙김 운동과는 차별화 돼 있다. 다른 문화권에 맞는 적합한 불교를 펼치려는 역사적 맥락을 따른 것"이라 설명했다.

진 연구원에 따르면 플럼빌리지는 마음챙김을 강조했지만 테라바다불교와 선불교의 패러다임 내에서 사용했고, 심리학을 차용하면서도 서양심리학이 아닌 유식심리학을 사용했다. 또한 스피릿록은 서양심리학을 통합해 사용하지만 불교교리 공부도 중시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이미란씨는 '중국 · 대만 불교-불광산사의 인간불교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박아름 기자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는 12월 17일 서울 견지동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서 '현대사회 속의 바람직한 종교공동체의 지향 세미나 2'를 개최했다.

봉은사 홈페이지 웹어워드 최우수상 수상

봉은사 홈페이지 화면

지난 9월 새롭게 구축된 봉은사 템플스테이 홈페이지(http://temple.bongeunsa.org)가 2015 웹 어워드 코리아 여행 · 관광 분야에서 최우수상에 최근 선정됐다.

웹어워드코리아는 2000여명의 국내 웹 전문가가 한 해 동안 신규 또는 리뉴얼된 국내 홈페이지 가운데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를 선정해 시상하는 시상식이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후원하는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관련 상이다.

봉은사 템플스테이 웹사이트는 기존의 복잡한 템플스테이 신청 등을 이용자들이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개편된 점과 한글, 영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를 지원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점을 인정받았다. 또 홈페이지에서부터 봉은사를 느낄 수 있도록 이미지와 템플스테이를 소개하는 카피 및 고객 편의를 위한 UI를 대폭 개선했다.

웹어워드코리아는 "봉은사 템플스테이는 1700년 동안 한국인의 삶과 함께하며 수행의 전통을 지켜온 유서깊은 사찰에서 고유의 아름다움과 수행자의 일상과 삶을 경험하는 심신을 맑게하는 프로그램으로 좀 더 간편하게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여행 · 관광분야 최우수상에는 봉은사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외에도 ㈜커머스플래닛과 SK플래닛(11번가)의 '여행 11번가', 한국관광공사의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 등이 선정됐다.

노덕현 기자

제1종주거지역 및 2차선 도로에 접한 –
〈매각지 인접 시세가〉 1,500~3,000만원 (공시지가: 700~800만원)
사찰 농원으로 최적합한 땅! – 과천토지 매각!

매각지 내 과수원(일부필지)

"그린벨트 규제완화 최대 수혜지 예상지-과천"
본 매각지는 강남 15분 거리의 선바위역 역세권에 입지하며 제1종주거지역 2차선 도로와 고급주택 취락지구에 접해 있는 생태주거지로 주목받는 지역입니다. 현황상 경사도가 낮고, 배나무밭 등 보존가치가 매우 낮아 그린벨트해제가 예상되는 도심지 임야입니다.

강남 부자들 주목하는 과천 명품토지 –
4호선 선바위역 500m
3.3㎡당 110~120만원
(분양단위 : 330㎡)

• 매각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일대 (지목 : 임야)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시행사 (주)경기토지개발
(소유권 이전 책임등기 : 임채일 법무사)
■청약금: 100만원 / 농협 355-0038-4227-43 (주)경기토지개발
청약신청 (일요일 공휴일 상담) 02)2058-0132